

# 한울 타리

# SUMMER



보스톤한인교회 소식지  
KCB Newsletter

Vol 49 No 2 2019.6.30  
편집: 홍보위원회

한울타리 편집팀 김한나 배광현 정유미 정은아 최재원 윤경문 목사

## 오리올즈(Orioles)를 보면서...

저희 집에 올해 오랜만에 오리올즈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았습니다.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주쯤 지나자 새끼 오리올즈는 둥지에서 날아 혼자 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도 둥지가 있었던 곳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동네를 산책하는데 한 오리올즈가 나무 아래서 지렁이를 잡고 입에 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곧 삼키겠지 생각했지만 그대로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부처럼 보이는 오리올즈가 옆에 나타났습니다. 싸이즈로는 부부로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전에 둥지 안에 있었던 새끼 오리올즈처럼 아직 배 부분의 털 색깔은 그대로였습니다. 금방 새끼 오리올즈임을 알아봤습니다.

크기는 비슷하지만 어미 오리올즈가 둥치 큰 새끼 오리올즈에게 지렁이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새끼 오리올즈는 나무에 앉아서 지렁이 잡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렁이도 차지하구요. 다 클 때까지 어미 오리올즈가 먹여 줄 뿐 아니라 살아 가는 법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리올즈는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나도 아니 100년이 지나도 대를 이어 보스턴에서 중남미도 날아다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에게서도 3세대의 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 예배예술 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 예배

3, 4월 주일예배와 토요 아침기도회를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로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 제직수련회

(4/6/2019, 토요일 오후 4 - 9시): 2019년 제직수련회를 사역별 모임과 김은주 목사님의 주제강의("Yesterday, Today, & Forever: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김은주 목사님은 1.5세 목회자로, 또 여성목회자로 세대간의,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가교역할을 하며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있었던 사역별 모임에서는 교회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새롭게 제직으로 섬기게 된 서리집사님들이 교회의 여러 위원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섬기신 분들, 사회를 맡은 사공현일 집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 수고하신 최학수 집사님과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 수고해 주신 최정환/한세진 집사님, 사전준비와 진행을 맡아주신 집사회장 김대식 집사님, 그 밖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사순절/부활절

새벽기도회 (3/7 ~ 4/20/2019), 성금요일 음악예배 (4/19), 부활절 예배와 성찬,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예배인도와 설교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교역자들 (이영길 목사, 윤경문 목사, 김수영 목사, 이요한 목사, 김성천 목사, 구현우 전도사), 모임준비 (최학수 집사, 안성완 장로), 친교 및 다과 (곽서영 집사, 윤만강 권사)로 봉사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금요일 음악예배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못 오신분들과 다시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특별찬양을 녹음해서 웹사이트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을 여러분들이 남겼습니다. 수고하신 찬양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를 성찬과 함께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 만남 동아리 모임

제직수련회를 앞두고 교인1부 위원회 (이문영 장로가정, 손영권 집사 가정), 교인2부 위원회 (안성완 장로가정), 홍보위원회 (김한나 장로가정, 정재원 집사가정, 배광현 집사가정), 그리고 예배위원회 (박신영 장로가정)이 3월 31일 오후 1:20에 Parlor 에서 모여서 오찬과 함께 교제하며 교회사역에 관한 공동의 관심과 협력할 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었고, 추후 follow up하는 과제를 안고 가끔씩 이런 자리를 가지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 예배예술위원회 팀별 활동

- 찬양대 리더 모임: 3/17일에 1, 2부 찬양대 대장, 지휘자, 솔로리스트, 예배위원장이 함께 식사와 교제 하며 찬양대 운영에 관해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 찬양대: 1부 반주자 정소라 교우가 학업을 마치고 귀국함으로 사임, 1부 찬양대실의 의자 교체
- 파이프 오르간: 페달보드, silent notes, 차임벨, 밸브 등을 계속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계정에 남아있던 기금을 다 사용한 상태이고, 계속해서 콘솔수리와 릴레이 수리를 필요로 함
- 방송실: 많은 분들의 수고로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찬양팀: 활발한 활동으로 2부예배를 위한 찬양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맡아 많은 수고를 하신 신민영 집사님이 남편의 직장관계로 6월말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 예배위원: 1부에 수고하실 예배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국내선교 위원회

위원장 이선영 장로

### 뉴 멕시코 단기 선교 (7/27-8/3/2019)

국내선교위원회에서는 오는 7월 27일(토)부터 8월 3일(토)까지 미국 뉴멕시코 주에 위치한 나바호 (드네) 부족의 보호구역, 나바호의 나라 (Navajo Nation)를 향한 단기 선교를 갖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뉴 멕시코의 나바호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나바호 인디언들을 섬기고 계신 이덕재 선교사님을 도와 지역에서 필요

로 하고 있는 문화 사역을 통해 한국문화와 나바호 문화를 함께 나누고 친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화 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 내의 국내선교 프로그램을 더욱 폭넓게 하고 교회 내의 3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교회 사역에 다양한 연령층, 3세대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선교 참가자들과 Youth group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교우님들의 적극적 도움과 참여 속에서 지난 5월 12일 선교기금 마련 김밥/오이소박이/짜두기/과김치 바자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모금액,\$3,500). 또한 김정선 장로님이 창립하신 선아모 (선교를 돕는 아름다운 모임)의 주최로 지난 5월에 Arts and Crafts Exhibits and Sales 로 선교모금을 해주셨습니다. 청년부의 만두 바자, 그리고 중고등부의 바자로 저희 나바호 미션에 도움을 주시고 있고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외에서도( Dr. Jean-Pierre Sommadossi) 개인적으로 나바호 미션을 위한 도네이션도 해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부서와 여러분들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 26명의 선교팀이 각각의 책임을 위해서 매달 선교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는 주님으로부터의 다양한 달란트를 받은 참가자들에 의해 나바호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폭넓은 클래스와 봉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바이블 스터디, 우크렐레 클래스, 아트 클래스 그리고 댄스 클래스와 함께 올해에는 김정선 장로님의 크롬북 클래스가 나바호 미션센터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요일에는 참가자들과 나바호아이들이 함께 마련한 콘서트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김문소 장로님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강아지 예방 접종을 실행하실 예정이십니다.

이번 26명의 선교팀 참가자들은 이선영 장로, 김문소 장로, 김정선 장로, 이유택 장로, 김계숙 권사, 이경자 권사, 원영옥 권사, 김희정 집사, 청년2부의 조나현 교우, 정윤원 교우 청년 1부의 부지형, 이보나, 이영주, 이지우, 그리고 중고등부(Youth Group)의 이주비, 김강현, 이선우, 이하운, 정종인, 안현준, 안민준, 이은호, 이종서, 장명현, 장라나, 그리고 Alex McGarry (김정선 장로님 손자) 입니다.

보스턴에서 선교팀을 지원하는 팀은 이해원집사, 광서영집사, 김동숙 집사, 윤경문 목사 입니다.

2016년 12 월 1 차 국내선교팀의 나바호 인디언 선교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7 여름 2차 선교, 2018 여름 3차 선교에 이어 4차 나바호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오는 4차 나바호 인디언 선교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선교 팀원들에게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 드리고, 또 선교팀을 떠나 보내는 선교 지원의 힘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 교육2부

### 교육 2부 (청년1-2부, 부청) 연합 야유회

May 26, 2019 Sun @ 1:30 PM

화창한 날씨 아래에서 교육2부의 청년들이 5월 26일 주일날 연합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비가 올까 봐 조마조마 했는데 너무나 청명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Larz Anderson Park에서 약 100여명의 청년들이 함께 바베큐와 함께 교육 2부의 연합과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3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은 보스톤한인교회에서 청년들은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하는 재목이자 미래의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어갈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그루터기 청년 1부 약 25명, 청지기 청년 2부 약 25명,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부청년부에서 약 40명이 야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교육 2부를 섬기고 계신 한문수/윤선미 장로님 댁을 중심으로, 고문이신 김영범/고경아 장로님 댁, 부위원장이신 구용한/구마리코 집사 가정, 그리고 최학수/최안나 집사 가정이 함께 고기를 준비하고 청년들을 섬기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많은 청년들이 집에 돌아갔고, 또한 메모리얼데이 롱위크엔드 임에도 불구하고 보스톤에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그간 부서간에 함께하지 못한 교제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부청의 이주원 형제가 레크레이션을 준비하여 단체 줄넘기와 성경퀴즈 대회를 위트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구용한 집사님이 준비해 오신 피나타를 하면서 따스한 햇살아래서 정신없이 사탕을 주우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은혜롭게 그리고 순조롭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걱정하시고 수고해 주신 교육2부 위원들과 관심과 정성으로 섬겨주신 교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쉐마행사 위원회

위원장: 장양술 장로  
보고: 최학수 집사

### “6월 쉐마의 밤”

6월 쉐마의 밤은 모든 족속과 백성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이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마 28:16).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해마다 이어오고 있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소개하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을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쉐마의 밤의 식사는 북동구역 (구역장: 김동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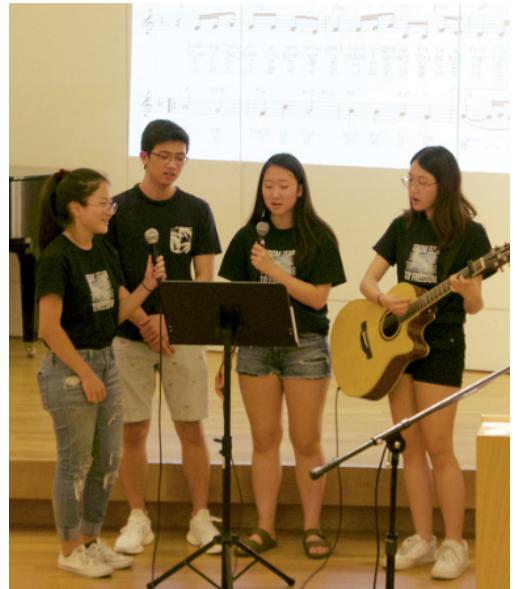
집사)의 섬김으로 맛있는 치킨테리야키를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역이나 부서가 자진해서 섬겨 주시는 쉐마의 밤 저녁식사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섬김이나 도네이션으로 봉사하실 분은 정광근 집사님을 컨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5년 넘게 피아노로 섬겨주신 신민영 집사님의 마지막 반주에 맞춰서 3세대 쉐마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이 ECC를 가득 매웠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하면서 주변의 교인들과 함께 즐거운 어린이 찬양도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하신 김수영 목사님, 보컬로 섬겨주신 정광근/정은아 집사님, 운영자/원영옥 권사님, 드럼 안성민 형제, 그리고 새택으로 돌아온 첼로의 김지은 자매까지 3세대 찬양팀의 아름다운 조화 또한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국내 선교위원회는 유승오 집사님께서 그간 이루어진 국내선교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분석과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3세대의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젊은이들이 참여가 필수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퍼스널 스토리를 담아 나눠주신 국내선교 사역은 선교가 단순한 교회의 한 사업이 아닌, 우리가 깊어지고 이어나가야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유쓰그룹 선교팀의 공연은 “You are My All in All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곡명처럼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유쓰그룹 선교팀 화이팅!

또한 해외 선교위원회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후원해 오고 있는 해외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양한 나라와 인종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품은 비전과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따르고 있는 우리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부터 후원하게 된 이집트 선교사역을 한승희 장로님/김경희 권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100장이 넘는 사진과 설명으로 이집트의 기독교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정윤원 형제가 쓴 연극 “암행어사, 선교사를 만나다 (The secret royal inspector encounters a missionary)”를 공연했는데, 작곡 및 스크립트를 손수 준비한 청년부의 열정과 젊음이 연극에 녹아 들어 모두가 공감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고전 의상을 준비해서 입고 각자의 역할을 능청스럽고 자연스럽고 연기해 낸 청년1부와 2부 지체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울며 씨 뿌리는 자”라는 주제로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지체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정성을 다해 주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씨앗이 자라기를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쉼마의 밤에서 새로 고정코너로 시작된 “다함께 몸 찬양해요” 시간에는 “Our God is a Great Big God!”이라는 어린이 찬양을 3세대가 함께 울동에 맞춰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혜승 집사님의 인도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박수치면서 온 맘과 온 몸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쉼마의 밤도 역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로, 기도로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은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쉼마의 밤은 성숙해 가고, 우리 교회의 3세대 사역은 무르익어 갑니다.



**선아모**  
 선교를 돕는  
 아름다운 모임

보고 김정선 장로

좋은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2주에 걸친 나바호 선교 기금모금 Arts & Crafts 전시회가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총 \$3,465 이 모금되었는데, 비용, 아티스트 재료비 빼고, 순수익 \$2,652.20이 선교 지정 헌

금으로 입금되어, 나바호 컴퓨터 기금이 충분히 모였습니다. 전시회를 위해 사진 (한승희 장로), 조각 (김경섭 집사, 김희진 사모, 진정원 집사), 수공예 손가방 (김경희 집사), 유화 (김희정 집사, 조순래 권사, 김정선 장로), 디자인 접시 (이경자 권사)등을 헌물을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원영옥 권사님은 Chromebook 두대를 직접 구입해서 헌물해 주셨고, 진경섭/배정원 집사님 부부께서는 요리용 스푼 100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Donation을 해주신 이정민 장로, 이경자 권사, 박신영 장로, 공경희 권사, 김종희 권사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번 모금된 기금으로 6-8대의 Chromebook을 더 구입하고, Wifi사용을 위해 현지의 Internet Infrastructure를 도와줄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은 일주일 Chromebook을 배우고, 클래스가 끝난 후 계속 20주 동안 online homework을 끝내면 컴퓨터를 상으로 받게 됩니다. 컴퓨터 클래스는 현지 이덕재 선교사님의 협조를 받아, 김정선 장로가 Youth Group에서 자원한 Tutors들과 함께 가르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선교에 직접 참여는 못해도 주님의 사역을 돕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선교를 돕는 아름다운 모임 (선아모)”가 교인위원회 산하의 은사공동체로 김정선 장로의 리드로 출발했습니다. 또한 홍보위원회의 협조 하에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ECC 갤러리, Main 로비, 친교실, 복도의 전시공간의 효과적 관리, 작품 상설 전시를 선아모가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선아모”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데,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고 특별히 프로가 아니라도 Artist/Crafts 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승희, 김경섭, 주미옥, 김희정, 조나현, 이계순, 김희진, 안성완, 진정원, 조순래, 원영옥, 김경희, 이경자, 김영란, 배정원, 진경섭, 김현지, 김정선, (무순, 존칭 생략)

12월에 있을 과테말라 선교를 위한 Arts and Crafts Exhibit 기금 모금도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아.모.



## 집사회

회장: 김대식 집사  
홍보부장 한세진 집사

### 한가족 예술제

5월 19일 주일 예배가 끝나자 교회 곳곳에 성도들이 흩어져 비밀 아닌 비밀을 웃음꽃 속에 소곤대며 자신들의 비밀 병기를 준비한다. 한 쪽에선 알록달록 나비넥타이를 매고 다른 한 쪽에선 콧수염을 붙이고, 누군가는 머리에 커다란 꽃으로 또 어깨에 머플러로 장식한다. 어린 자녀를 쫓느라 평소 운동화만 신던 젊은 엄마는 뽀족한 빨간 구두로 갈아 신고, 오랫동안 flute을 조율하고, 또 한 무리는

곱게 입은 한복을 가다듬고 머리를 가지런히 한다. 햇빛이 유난히도 좋았던 라일락 향기 가득한 그 주일 봄 날에 한가족 예술제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 겹 저어 가라~’ 상록회 회원분들이 모든 참가자들을 축복하시는 듯 찬송가 302장으로 공연의 장을 여신다. 썸플라워 유년부의 Our God is a Great Big God 찬양속에서 아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큰 믿음을 심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느껴진다. 이어서 초등부, 중고등부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무대가 이어진다. 실력과 Voice of the Angels 팀과 자매 그룹은 우레 같은 박수를 받았고 청년 1, 2 부의 연극을 가미한 찬양무대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훔치게 한다. 근사한 밴드를 갖춘 부부청년부, 메세지가 강한 북서구역, 화음이 좋은 남서구역,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함께한 중앙 3 구역과 탄탄한 뉴 멤버들이 함께한 북동구역까지 예술제가 진행되는 내내 신선한 서프라이즈와 감동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오디오에 비주얼까지 기억에 오래 남을 중앙 2 구역의 베르디 오페라 합창곡... 그들의 passion을 누가 감히 따라잡을 수 있을까.

심사평을 기다리는 동안 집사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친교시간을 갖는다. 정성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된 카레밥이다. 그 전날 토요일 밤에 모인 집사회 회원들은 100 파운드 되는 감자와 50 파운드 양의 고기를 준비했다. 60 파운드 매운 양파를 자를 때는 단체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려 그제 또 웃겨서 다같이 폭소를 터뜨리고. 350 인분 음식을 훌륭하게 진두지휘하신 노현철 집사님은 행사가 끝난 후 손발이 잘 맞는 집사회 임원들에게 “함께 일하니 재미있네요. 다음 이벤트가 기대되네요.”라고 말씀하신다. 보기 좋은 풍경이다. 열심히 일 하는 사람들, 간식 날라주는 사람들, 대신 설거지하겠다고 달려든 옛 집사회 회장님들, 필요한 것 없냐고 물어보시는 다정한 어르신들... 섬김의 마음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술제 결과 발표의 시간, 음악에 조예가 깊고 예술적 감각을 고루 겸비한 심사위원 세 분 -이영길 목사님, 이해승 집사님, 최현구 집사님-께서 재치만점의 평을 들려주신다. 예술제 내내 그들은 모든 팀의 공연을 기쁨 가득 찬 웃는 얼굴로 바라보셨다. 올해 새롭게 마련된 ‘베테랑 방청객 리액션’ 상은 뜨거운 반응을 선보이며 예술제를 제대로 즐겼던 신영각 집사님, 강혜정 집사님, 안성완 장로님께서 수상하셨다. 행사 구석구석에서 느껴진 에스더 여선교회의 수고와 정성스럽게 준비된 선물로 기쁨과 웃음꽃이 두 배가 되었다. 찬양을 부르며 집으로 향하는 성도들 모습 속에서 다음 예술제 준비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본다.

## 수상 내력

상록기교회 -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 Best Role Model / 믿음의 본 때 상

주일학교 유년부 - “Our God is a Great big God”: Best Photogenic Presentation / ㅎㅎㅎㅎㅎㅎ 상

주일학교 초등부 - “Million Reasons”: Best Korean-American-Christian Presentation

/ 앞으로도 이렇게 바람직하게만 커다오 상

중고등부 - “When I Think about the Lord” : Almost All Stars’ Presentation

/ 자 이제 본 공연을 보여줘 상

Voice of the Angels - “Forever”: Best Performance / 안 봤으면 평생 후회할 뻔 상

자매그룹 (수현, 수아) - “꼭 안아 줄래요” : Most Popular Presentation / 싸인 받으려면 지금 받아 상

청년 1,2 부 - “요게벳의 노래”: Best Theatrical Presentation / 다음 행사 스케줄은 브로드웨이 상

부부청년부 - “사랑 그 좁은 길”: Best Team of Talented Resources / 2.5% 상

복서구역 - “십자가 그 바람이”: Most Theme-Related Touching Presentation

/ 아멘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상

남서구역 - “온맘다해”: Best Teamwork / 말하지 않아도 느낌 아니까 상

중양 3구역 - “Shout to the Lord” : Most Innovative and Unique Presentation / 혁, 천천데 상

중양 2 구역 -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Best Presentation of Traditional Originality

/ 진정 아마추어라고? 상

북동구역 - “예수 사랑하심은”: Best Diversity / 함께하여 선을 이룬 상



## [2019년 봄 대청소 보고서]

보고: 임상균 집사

**목적:** 어머니 교회이자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몸 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보스톤한인교회 교우들이 깨끗하고 향기로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한다.

특별히 아이들이 마음 놓고 기어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날짜 및 시간:** 5/4, 토요일 @12:30 - 16:30

**진행:** 12:30 펠로우쉽 홀 집결 ▽ 회장님 기도후 피자 점심 ▽ 13:00 각 구역 확인후 조별로 나누어 청소 시작함 ▽ 15:00 중간점검, 인력재배치 ▽ 16:00 청소완료/뒷정리

올해도 7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며 함께 청소하였습니다! 주어진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하는 과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함께 도와주며 격려하며 이해해주며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청소할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들에 흐뭇해 하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 보완이 필요한 부분:

- 페인트 칠: 청소 당일 여러 곳이 성공적으로 페인트칠이 되었지만, 아직 페인트칠을 해야할 여러 곳이 남아 있습니다.
- 코크 바닥청소: 준비하신 집사님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얻어졌으나, 전문적인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준비하는 과정에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 Power sprayer: 이정규 장로님이 제공해 주신 고압분사기(물)가 유리창/교회현관 및 외부 청소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지만, 한 대가 더 있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청소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유스그룹: 유스룸을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부분은 좋았지만, 교회 전체 행사에 중고등부의 능동적인 참여를 좀더 유발하여 교회일들에 즐거운 자부심을 심겨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건물관리부 중요성: 대청소를 비롯해, 기타 건물관리부의 중요한 사역들을 생각했을 때, 좀 더 개선/확장된 건물관리부가 조직되는 것도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의 소수에게 집중된 책임(회장/총무/건물관리부장)을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준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차장제도도 인원보충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앞으로 확인/진행해야 할 부분들

1. 지하 화장실 벽: 곰팡이 생기기 전 벽에 석고로 씌우는 작업 필요(전문가 hire 필요), urgent
2. ECC 지붕에서 물이 벽 안으로 흘러가 지하 화장실 벽 문제야기 (전문가 hire 필요). Insurance 와도 연락필요
3. ECC 채플 조명교체: 전문가 hire 필요
4. Playground spinner: 구입추진 (사공현일, BCI Burkner Company, LLC. 920-921-9220)
5. 지하 벽 (화장실 근처) 페인트 칠
6. 지하 청년1부 방 정면 페인트 칠 (봄청소 때 사용한 페인트와 색깔이 다른 듯합니다)
7. 나무심기
8. 지하 여자 화장실 한 곳 paper towel dispenser 요청 (하나가 있지만, 하나 더 요청)
9. 1층부엌 싱크 확인 요망
10. 친교실 에어컨 설치

## 상록 기도회

회장 이숙재 권사

교우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4월 28일 주일 아침예배를 마치고 101호에서 4월 모임을 가졌습니다. 특강으로 이정민 장로님의 “노인들의 건강 치매”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모두 열심히 듣고 또 질문도 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5월은 아주 바쁜 달이었습니다. 5월 5일 주일은 어린이주일 예배시간에 어린이들을 만나서 부족한 제가 10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늦게 나이 40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도 떨리고 부끄러웠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들 앞에 섰습니다.

5월 12일 주일은 어머니날, 올해도 남선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필 국내선교위원회에서 김밥 바자회를 했기에 조금 일손을 돕겠다고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를 신고… 참 차림새가 죄송스러웠습니다. 상록회원들께서 모두들 기뻐하시고… 고맙습니다.

5월 19일 주일은 ‘한가족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상록회도 순서 1번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성혜 사모의 노래지도와 반주로 모두 18명이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곡을 열심히 은혜롭게 불렀습니다. 남성 회원님들의 2절 찬양소리가 우렁차고 은혜로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울긋불긋 고운 한복을 입으시고… 축제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보탬이 되어서 고맙습니다. 끝난 후 집사회의 카레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콧수염도 인상적이었구요. 나누어 주신 상품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이 나타났습니다. 준비해 주신 집사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5월 25일 토요일은 오전 11시에 성요한 교회에서 고 백린 장로님의 셋째 아들이신 백형기/홍경애 두분께서, 아버님의 지인이신 이근후 박사님 가족을 모시고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하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 이근후 박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 2권을 판매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건강도 안좋으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왼쪽 눈도 실명이시라니… 참으로 어려운 걸음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맛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웠던 것은 천문학자인 큰 아드님의 강연이 2시에 있었는데 약속이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우리 교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한미노인회분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월 26일 주일은 어느때처럼 아침 예배 후 101호에서 월례모임을 가졌습니다. 특강으로는 김형범 장로님의 “자기 이름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자기 이름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이름을 써 달라고 하시면서 메모지를 돌렸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하셔서 놀랐습니다. 5월 점심식사 제공은 윤산만 성도님, 이정숙 권사님이 정성껏 준비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5월 28일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최선경 권사님께서 택에서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셔서 오른쪽 골반뼈를 다치셨는데 오늘 가서 뇌니(6월 13일)- Care One, Newton 요양원- 오늘 처음 의자에 혼자 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윤현자 총무님께서 아드님택에 갔다가 넘어지셔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김형범 장로님께서도 오늘 한쪽 눈마저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6월 30일 주일은 아침 예배 후 교회에서 멀지 않은 Larz Anderson Park에서 시원하게 야외 나들이 할 예정입니다. 바라옵기는 일기가 쾌청한 날씨가 되길… 언제나 집사회에서 자릿세와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시는데, 올해는 정성어린 김밥이 준비될 것으로 압니다. 넓은 잔디 위에서 백조가 한가로이 노는 연못을 바라보면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재명 부회장님의 재치 있는 말씀씨를 들으며 하루를 멋지고 즐겁게 지낼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 권사회

회장 김영미 권사



올해가 시작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권사회는 4월 12-13일에는 동북대회 여성회 연합수련회에 신미송 권사와 원영옥 권사가 김한나 장로와 더불어 참석하셨고 예정한대로 후원금 \$300불을 전달했습니다. 4월 21일에는 유년/초등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교역자와 선생님들을 위한 간단한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위해 미리 모여서 성찬기 닦는 일에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는 유년부를 위한 작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사 때 마다 부족한 순가락 212개를 구입해서 부엌에 비치했습니다. 부엌 캐비닛 문고리도 구입해서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또한 무명의 집사님으로부터 donation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권사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랑과 격려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랑의 돌봄과 나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6월2일에는 예배를 위해 늘 은혜로운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웨마 찬양팀을 위하여 간단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저희들도 흐뭇하고 감사드리고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모든 권사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1년 중 주일학교의 가장 큰 행사이자, 어린이들이 손을 꼽아 기다리는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 본당과 친교실,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을 누비며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먹고, 경험하는 잔치입니다. (매일 저녁 5:00 - 7:30pm) 올 해에도 신나는 율동과 찬양이 준비되어 있고,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으며, 오랫동안 잊지 못할 즐거운 예배와 배움의 시간들이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올해의 주제는 “Roar! Life is wild. God is good.” 입니다. 작고 어린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머리 속에도 세상은 충분히 거친 곳입니다. 날마다 무서운 소식이 들리고,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며, 누군가는 넉넉히 누리는데 왜 누군가는 늘 부족하고 모자란 중에 고통받아야 하는지, 어린이들은 세상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총 다섯 가지의 소주제들을 24일 주일예배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배워가며, 매일 말씀과 찬양, 만들기와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몸에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그 사랑을 새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준비가 있더라도 기도가 더 필요한 줄 알기에, 주일학교에서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각자의 장소에서 잠시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울타리 소식지를 읽으시는 교우님들께서도 오늘 저녁 9시에 시간이 되시면 잠시 하나님께 해바라기 주일학교와 여름성경학교를 올려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올려 퍼지는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닿으리라 믿습니다.

**VBS 2019**  
Vacation Bible School

**June 24-27**  
5pm - 7:30pm

**ROAR!**  
Life is Wild \* God is good

*You're invited!*

**ROAR! Life is Wild God is Good!**

**WHERE:** Korean Church of Boston | 32 harvard st. Brookline  
**AGES:** 4 years old - 5th grade | Cost: \$30 (저녁식사 포함)  
**PRE-REGISTRATION:** <http://evite.me/JJ4TwT2gPJ> (사전 등록)  
 Walk-in registration available (당일 등록 가능)

**FOR MORE INFORMATION CONTACTS**  
 Sunday school 담당목사 김수영 [suyoung.kim83@gmail.com](mailto:suyoung.kim83@gmail.com)  
 Sunday school 부장집사 진정원 [jjwahn@gmail.com](mailto:jjwahn@gmail.com)

## 중고등부

### 보고 안성민 교사

4월에는 중고등부에서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사순절을 맞아 주일학교와 함께 겨자씨 선물 가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Boston Health Care for Homeless Program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함으로써 그 단체에서 돕는 600명의 어린이들에게 작으나마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때 가방은 학생들이 직접 산 물품들로 채웠는데,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믿습니다.

4월에는 중고등부에서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사순절을 맞아 주일학교와 함께 겨자씨 선물 가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Boston Health Care for Homeless Program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함으로써 그 단체에서 돕는 600명의 어린이들에게 작으나마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때 가방은 학생들이 직접 산 물품들로 채웠는데,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믿습니다.

둘째로는 중고등부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From Fear to Freedom! 즉 ‘두려움에서 자유로’라는 테마를 갖고 수양회를 진행했는데요,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한 가르침을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양회에서 각종 놀이와 찬양, 그리고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5월에 큰 행사는 3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5월 4일날 열린 청년1부와 함께하는 찬양의 밤이었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1부가 같은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친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개최한 이벤트였습니다. 이로써 서로 더 알아가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벤트를 더 많이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두번째는 5월 19일날 한가족 예술제를 위한 연습과 참여입니다. 가족이라는 존재가 기독교에서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연습은 학생들이 직접 주도했고, 이로써 연습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되고,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는 재밌는 시간이 됐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26일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9명의 학생들을 위한 졸업파티가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의 소감을 듣고, 선생님들의 축하를 들으며,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행복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6월 2일을 2년간 중고등부를 섬겨 주신 구현우 전도사님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늘 학생들을 생각하고 중고등부 학생에게 좋은 말씀들을 나누어 주신 전도사님과 작별인사를 하면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은 6월동안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6월 23일 야외예배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선물을 느끼며 재밌게 친교하는 시간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해 Sunflower Sunday School VBS, 즉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도우미 학생들이 하나님의 종으심을 더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청년 1부

담당교역자: 이요한 목사

봄학기 후반기 동안, 청년1부 식구들은 “주의 은혜의 해”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말씀을 금요 모임 때 묵상했습니다. 또한 주일모임에서는 사순절 기간을 맞아 [킹덤라이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성경공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기간을 시작하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으로 이어지는 역사서들을 중심으로, “반역의 시대 속을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주제로 금요 모임과 주일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모임 외에 여러 행사들이 많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주요행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정기총회(4/21)를 통해서, 지난 1년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고, 그동안의 사업 및 회계 내역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다음 회기를 이끌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새로 선출된 김현모(회장), 이효준(부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청년1부를 이끌게 됩니다.

5월 4일(토)에는 Youth Group과 함께 연합찬양집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체육대회, 여름야외모임, 연합예배 등을 통해서, 청년1부와 Youth Group이 연합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찬양집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령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기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과 Youth Group 학생들이 참석하여 함께 식사하고 찬양하는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맛있는 저녁식사와 집회 준비를 위해서 귀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청년1부 간사님들, Youth Group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끝으로, 6월에는 국내/해외선교를 위한 음식바자회를 가졌습니다. 올해에는 뉴저지에 있는 엄마손 만두를 주문/전달하게 되었는데, 청년들에게 의미있는 섬김과 선교 동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수익금은 각 단기선교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년들이 미국과 한국 등의 집에서 지내거나, 타지에서 인턴십, 여행 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임에서 만나게 되는 청년들의 숫자는 평소보다 적지만, 여름 날씨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울여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 청년 2부

담당 교역자 윤경문 목사  
김수영 목사

지난 5월 12일 청년 2부에서는 정기총회를 갖고 2019년 7월부터 청년 2부를 새로 섬길 회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청년 2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회장-김효인, 부회장-김유진, 총무-김주는 교우가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귀한 섬김을 기대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 회장

단(회장- 이준석, 부회장-양원제, 총무-성원모)이 지난 1년간 멋진 팀워크로 아낌없는 헌신을 해주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2일(토) 신규임원진 친교모임을 가지고 신규임원진 교체식을 23일 가질 계획입니다.

지난 5 & 6월 주요 행사로는 5월 26일 교육 2부 위원회에서 야유회를 열어주셔서 청년들이 부부청년부, 청년 1부들과 바베큐 식사를 나누고 재미있는 게임의 시간을 통해 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야유회를 위해 풍성한 음식을 베풀어주신 교육 2부 위원장 한문수 장로님, 청년 2부 담당 구용한 집사님, 그리고 김영범 장로님과 최학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만에 옛 교우 중 부회장으로 섬겼던 김하얀 자매가 시카고 근교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올해 졸업생으로는 이주영 자매가 6월에 캐나다에서 박사학위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6월 8일(토) 선교의 주제로 가졌던 쉼마의 밤에서는 청년 2부 주최로 연극, “암행어사, 선교사를 만나다”을 준비하여 멋진 무대를 꾸몄습니다. 각본과 음악은 정윤원교우가 직접 쓰고 연극 배우로는 청년 2부 강석우(암행어사), 양원제(사또), 낭자(김유진), 이준석(선교사), 청년 1부 김현모(포졸), 이영주(첩)가 맡아서 훌륭한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소품 담당으로 김주는, 이주영 자매가, 비디오는 성원모 교우가, 의상과 배경자료는 윤경문목사님, 음향은 김수영 목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쉼마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기억하고, celebrate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음에 감사드립니다.

6월 주일성경공부 시간에는 ‘공동체 세워가기’란 주제를 다루기로 하고, ‘사랑의 공동체’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에 관한 토론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부 청년부

회장 신준섭/박예리 집사  
보고 박예리 집사

부부청년부는 보스톤 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 가는 40세 이하의 가정 공동체입니다. 2019년 6월 등록가정 기준으로 40여가정이 소속되어 있으며, 매주 주일 예배 후 꾸준히 약 20여가정이 모여,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며, 식사 후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2분기에는 긴 겨울이 물러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면서 부부청년부에도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기념하는 한가족 예술제에서 부부청년부에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 그 좁은 길”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함께 모여 예술제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가셨던 사랑과 겸손의 좁은 길을 깊게 묵상하며 부부청년부 공동체가 더 끈끈하게 뭉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교육 2부에서 주관하는 야유회가 5월26일에 Larz Anderson Park에서 있었습니다. 부부청년부 뿐만 아니라 청년 1, 2부가 멋진 자연과 더불어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부청년부의 간판 MC 이주원 형제님의 인도 아래 단체 줄넘기와 닭싸움, 그리고 년센스 성경퀴즈까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며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유회 준비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경 써 주시고 섬겨 주신 여러 집사님들, 그리고 다른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주일 부부청년부 모임에서는 말씀 경건회, 조별 성경공부, 형제/자매 기도모임, 새신자 환영회 등의 프로그램들로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아칸소에서 이주하여 오신 강현기/임진희 가정과 중국어가 유창하신 이송환 형제님 가정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두 가정께 부침이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청년부를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 김성천 목사님께서 인도해주시는 말씀 경건회를 통해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성천 목사님께서 구약성경에 있는 율법, 예언, 지혜의 전통을 설명하시며 이 세 전통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따스했던 봄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벌써 초여름같이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도 부부청년부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향은 김수영 목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쉼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기억하고, celebrate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음에 감사드립니다.

6월 주일성경공부 시간에는 ‘공동체 세워가기’란 주제를 다루기로 하고, ‘사랑의 공동체’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에 관한 토론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 정은아 집사

봄기운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고 여름 소나기같은 비를 맞았습니다. 이제 저녁 9시 가까이 밝은 하늘을 보고, 아직도 줄린데...해도 새벽부터 햇살을 받을 여름이 옵니다.



에스더 사역의 4, 5, 6 월 사역이 마치 봄처럼 아주 짧은 순간 지나가 버렸어요. 4월의 부엌 대청소, 5월의 한가족 예술제 등 굵직한 행사를 마치고 나니 6월은 그동안 미뤄온 사역이 뭐가 있나, 좀 더 잘 이루어져야 하는 사역은 뭐가 있을까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교회의 각종 행사 때마다 식사나 다과를 드시는 경우, 많은 일회용품들이 사용되는데 적지 않은 플라스틱과 종이컵이 소비가 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교회에 구비된 젓가락, 숟가락, 컵, 접시, 그릇 등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모임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권사회에서 최

숟가락을 220개 구매해 주셔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을 이번 한올타리 소식지 통해 감사의 인사를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절제와 개인 머그 준비, 부엌에 구비된 용품들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일회용품 구매를 위해 책정된 예산도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다른 중요한 사역을 위해 더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 마리아 여선교회

회장 궤서영 집사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고 증거한 이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악귀를 쫓아 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었지만, 자기들의 소유로, 헌신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2019년의 오늘도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교우님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교회를 위해 헌신

하며,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되고자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6월 세번째 토요일 아침 예배에서 이영길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이고 여선교회 회원분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해 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선교회 여러분들 모두 함께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4월부터 6월까지의 행사를 정리해 보면:

청년부/유스그룹 식사 대접이 4월 28일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즐겁고 풍성하게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1. 4월 30일, 5월 9일, 28일, 6월 13일에 기도 모임이 있었으며, 6월 25일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만,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이라 생각합니다.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분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은혜를 받고 또 기도 응답도 받는 것을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고 지치는 시간이지만,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2. 6월 30일에는 국내 선교 사역의 하나인 홈리스 쉼터 음식 봉사를 위해 마리아 여선교회에서 Boston Rescue Mission으로 김동숙 집사님과 함께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여 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 Big Tent 안내

- 격년마다 열리는 장로교 선교국(PMA) 주관 행사인 Big Tent 가 금년 8/1~3에 Baltimore에서 열립니다. “Called to a Movement beyond Institution (롬 12:2)”를 주제로 열리는 금년 Big Tent 에서는 제도적 교회 이상의 역동성을 찾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Group 이 함께 모여 교제하며 배우는 가운데,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 주장사로는 나승찬 교수 (North Park Theological Seminary 교회성장학 부교수), Amantha Barbee 목사 (Oakhurst 장로교회 담임목사), 그리고 223 회 GA Co-Moderators (Cindy Kohlmann 목사 & Vilmarie Cintrón-Olivieri 장로)가 주제발표를 하게 됩니다.
-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Learning Opportunity Program 중 한인 강사로 이영길 목사와 김은주 목사가 “Korean Church: A Sign of Hope”라는 제목으로 한인교회의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smile.amazon.com](https://smile.amazon.com)]

Dear XXX,

This is your quarterly AmazonSmile donation notification. Your charity, Presbyterian Women i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Inc, recently received a quarterly donation of \$158.92 thanks to customers shopping at [smile.amazon.com](https://smile.amazon.com).

To date, AmazonSmile has donated a total of:

- \$1,873.01 to Presbyterian Women i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Inc
- \$134,890,393.33 to all charities

Thank you for supporting Presbyterian Women i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Inc by shopping at [smile.amazon.com](https://smile.amazon.com). You can track your impact throughout the year at your My Impact page. 여러분이 Amazon.com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 ‘미국장로교 여성회 PC(USA) PW’ 자선단체에 지정하여 구입하시면 구매비의 일부가 자선비로 기부됩니다. 적은 액수가 모여 여성회의 선교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교우 환영반

교인위원회 1 위원장 이문영 장로  
보고 신준섭 집사

교인 위원회에서는 4월 새교우 환영반을 진행하였습니다. 새교우 환영반 마지막 날에는 안성완 장로/진정원 집사 가정에서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풍성한 음식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섬겨 주신 안성완 장로님/진정원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4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9년 4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

**백지형/박수진 가정**은 MCPH에서 공부하시는 백지형 교우님 때문에 보스톤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백지형 교우님께서서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오셨고, 모태신앙으로써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박수진 교우님 또한 모태신앙 이시고 한국에서 소개로 백지형 교우님을 만나 결혼 후 작년 가을 보스톤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두분께서는 현재 부부청년부에 소속되었고, 준비 찬양팀에서 섬기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태현/김예원 가정**은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작년 8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 두 분께서 함께 MCPH에서의 학업을 위해 보스톤으로 다시 오시게 되었습니다. 김예원 교우님은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모태신앙으로 개신교회를 오래 다니신 강태현 교우님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임극유/이수경 가정**은 우리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하여 딸(누리)이 있고 현재 부부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임 교우님은 2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고, 이수경 교우님은 대학교 시절 종교학 수업을 들으면서 신앙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태/김소연 가정**은 Brigham에서 포스닥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신 김성태 교우님 때문에 4개월쯤 전이 곳 보스톤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김성태 교우님께서서는 모태 신앙이시고, 김소연 교우님께서서는 미션스쿨에 다녔던 학창 시절 자연스레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슬하에는 딸 지우(6)이 있으며, 현재 중앙 3구역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송환 교우님**께서는 올스톤 지역에서, 하시는 사업을 위한 시장조사를 하던 중 우리 교회 교인을 만나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중국으로 이민을 가서 오래 생활하셔서 중국어가 유창하시고 현재는 사업 및 사업 컨설팅 관련 일을 하고 계십니다.



# 나누고 싶은 모습



4월 제직수련회



성금요 음악예배



권사회-주일학교 & 중고등부 교사 식사접대



중고등부 Retreat



한가족 예술제-자매 증장단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 617-739-2663

F: 617-739-1366

[www.kcboston.org](http://www.kcboston.org)

담임목사: 이 영 길



보스톤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